토마스 브레데가 만든 미니어처 세상

REAL & UNREAL

아주 섬세한 미니어처로 창조된 아름다운 풍경, 하지만 실제 자연 속 왠지 모를 미묘한 부조화는 진짜 풍경이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독일 사진가 토마스 브레데가 전하는 자연과 인간에 관한 이야기.

에디터 | 조미리, 디자인 | 이정우

Roller Coaster in a Winter Night, 140×200cm, 2014 © Thomas Wrede / Courtesy of Beck & Eggeling Gallery, Duesseldorf

Drive–In Theatre, 140×190cm, 2009 © Thomas Wrede / Courtesy of Beck & Eggeling Gallery, Duesseldorf

After the Rain, 140×180cm, 2012 © Thomas Wrede / Courtesy of Beck & Eggeling Gallery, Duesseldorf

Football Pitch, 140×180cm, 2008 © Thomas Wrede / Courtesy of Beck & Eggeling Gallery, Duesseldorf

"나는 이 시리즈에서 모형세트(model kit)로 세상을 재창조했다.
아주 조그만 물웅덩이는 큰 호수가 되고, 몇 센티밖에 되지 않는 모래는 길게 뻗은
해변으로 변한다. 집과 나무 같은 작은 미니어처들을 놓아둠으로써 말이다."

– 토마스 브레데

After the Flood, 140×220cm, 2012 © Thomas Wrede / Courtesy of Beck & Eggeling Gallery, Duesseldorf

"보는 이에게 놀라움을 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이것은
작은 세계 속에서 큰 세계를 보게 되는 흥미로운 경험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연과 그것의 파괴,
자연과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 토마스 브레데

Roller Coaster Ruins, 120×250cm, 2013 © Thomas Wrede / Courtesy of Beck & Eggeling Gallery, Duesseldorf

웅장한 자연을 배경으로 잘 조화된 듯 보이는 인공 구조물들이 보인다. 언뜻 평화로운 전원의 풍경처럼 다가오는 이 사진들은 토마스 브레데(Thomas Wrede)의 〈Real Landscapes〉 시리즈이다. 언뜻 보면 이 작품들은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풍경사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내 느껴지는 미묘한 부조화는 그의 작품이 그저그런 풍경사진이 아니란 걸 알게 해준다. 실제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진짜 풍경은 사라진 〈Real Landscapes〉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는 것일까.

'가공한' 풍경 속에 숨겨진 '진짜' 풍경

토마스 브레데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세계를 꾸준히 구축해오고 있는 독일 사진가다. 대학에서 회화와 드로잉을 공부한 그는 자신의 그림을 기록하기 위해 찍었던 사진이 오히려 회화보다 더욱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뒤, 1991년 독일 사진가 디터 아펠트(Dieter Appelt)의 아트스쿨에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했다. 1998년 발표한 초상 시리즈 〈Magic Feelings〉 이후, 놀이동산 속 인위적 풍경을 담은 〈Magic World〉(1998), 아파트 벽을 덮은 다양한 벽지를 촬영한 〈Domestic Landscapes〉(2000–11), 뉴욕의 광고판을 담은 〈Manhattan Picture worlds〉(2002–07) 등 '풍경'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Real Landscapes〉는 2004년 첫 촬영을 시작했다.

〈Real Landscapes〉는 넓게 펼쳐진 해변이나 대지, 혹은 잔잔한 수면 등을 배경으로 작은 집들과 도로, 건물들이 늘어선 풍경사진이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수평선과 구름에 스며든 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게 만드는데, 멀리서 혹은 상공에서 바라보는 듯한 시선은 이런 효과를 더욱 강조한다.

하지만 시리즈 제목인 '진짜 풍경'은 사실 매우 반어법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풍경이 모두 브레데가 만들어낸 인공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미니어처로 재창조한 세계

"나는 모형 세트(model kit)로 세상을 재창조했다. 아주 조그만 물웅덩이는 큰 호수가 되고, 몇 센티밖에 되지 않는 모래는 길게 뻗은 해변으로 변한다. 집과 나무 같은 작은 미니어처를 놓아둠으로써 말이다."

사실 그의 사진은 모두 1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촬영한 것들이다. 웅장한 듯 보였던 자연 풍경은 발에 채일 만큼 작은 모래더미이거나 물웅덩이이고, 화면 속 모든 인공물은 이베이(eBay)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한 미니어처들이다. 그는 이런 장난감을 자연의 좁은 영역에 놓고 촬영하는 방식으로 〈Real Landscapes〉 속 세상을 창조했다.

"사진 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제로 그 곳에 있었던 것들이다. 관람자들은 시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작은 모래사장이 거대한 지표면으로 바뀌는 식이다. 자세히 관찰해야만 사진 속 부조화와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위적 효과가 아닌 실제 풍경 속에서 사라진 차원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관람자는 사진 속 작은 모형들을 큰 건물이나 도로 등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작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사람이 사는 건물이거나 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 하지만 이 장난감들이 놓인 자연은 작든 크든 그저 자연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는 브레데의 〈Real Landscapes〉를 통해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오만함을 느끼거나, 자연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우리들의 유약함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많게는 한 해 5~8개의 작품을 촬영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1~2년이 걸리기도 한다. 매우 느린 속도이다. 하지만 난 자연이 나에게 알맞은 빛과 풍경들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토마스 브레데는 지금까지 작업한 〈Real Landscapes〉 시리즈 60여 점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공간을 가득 채운 그의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MP

토마스 브레데(Thomas Wrede) www.thomas-wrede.de
1963년 독일 출생으로, 뮌스터와 베를린에서 순수 예술을 공부했으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Kunstakademie Muenster)에서 사진을 가르쳤다. 2007년 〈Real Landscapes〉(Galerie Herrmann & Wagner, 베를린), 2010년 〈ANYWHERE〉(Museum Kunst der Westküste, 쾨르섬), 2012년 〈The promised Land〉(Gallery Beck & Eggeling contemporary, 뒤셀도르프), 2014년 〈Real Landscapes – Zwischen Sehnsucht und Debakel〉(Beck & Eggeling, 뒤셀도르프)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다.